

iM FX Brief

원화 추가 강세, 이란 리스크에 달렸다

FX Brief

[경제] 박상현 2122-9196 shpark@imfnsec.com

주간 동향: 미국 6월 소비자물가 VS 이란 전쟁 확산 리스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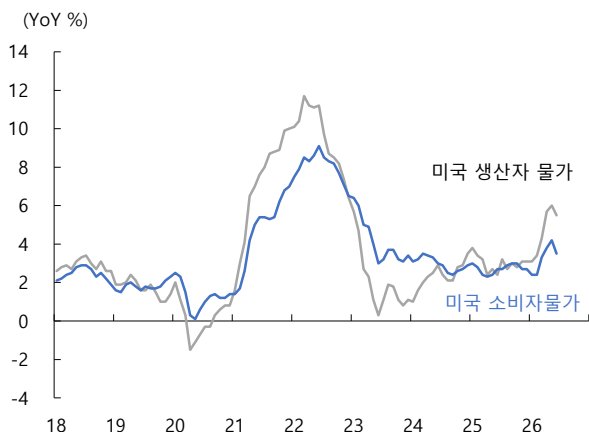
- 6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유가 하락 영향으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달러 약세 압력을 높였으나 이란 전쟁 확산 리스크와 더불어 반도체 주가를 중심으로 한 증시 변동성 확대가 달러 낙폭을 제한함
- 유로화는 이란 리스크발 유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 영향으로 전주대비 소폭 상승함
- 엔화는 약보합세를 보임. 달러 약세와 일본 정부의 구두성 개입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란 사태 영향으로 엔화 가치는 전주대비 하락함. 다만 엔 약세에 베테하는 투기적 순매도 규모는 2주 연속 감소함
- 위안화는 2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예상치(YoY 4.5%)를 하회하는 4.3%의 부진한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달러 약세 영향으로 강보합 수준을 유지함
- 호주달러는 강세 흐름을 이어감. 달러 약세와 원자재 가격 반등 등이 호주 달러 강세 재료로 작용함
- 달러-원 환율은 하락 추세를 이어감. 달러 약세와 SK하이닉스 ADR 환전 수요 등이 달러-원 환율 압력으로 작용했지만 이란 리스크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가 환율 낙폭을 제한함. 7월중 원화 가치가 주요국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함

	7월 17일 증가	전주 대비 (%)	전년말 대비 (%)
달러화 지수	100.8	-0.19	2.48
유로-달러	1,144	0.20	-2.61
달러-엔	162.4	0.45	3.63
역외 달러-위안	6.78	-0.07	-2.84
호주달러-달러	0.70	0.43	4.66
달러-원	1,486.0	-0.83	2.86

금주: 이란 전쟁 확산 분수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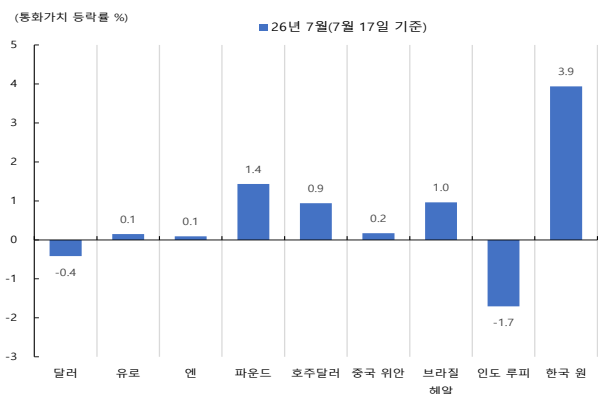
- 글로벌 외환시장, 특히 달러 흐름을 좌우할 뚜렷한 재료 부재 속에 이란 전쟁 확산 여부에 따른 유가 추가 상승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할 것임. 미국과 이란간 상호 공세 강화 등으로 전쟁 국면 장기화시 유가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며 이는 달러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.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도 여전히 주목되는 변수임
- 국내적으로는 달러 수급이 개선된 가운데 이란 리스크가 달러-원 환율의 추가 하락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. 한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가 외환시장 변동성도 높일 것으로 보임
- 금주 달러-원 환율 밴드는 1,460~1,510원으로 예상함

그림1. 유가 하락 영향으로 상승률이 둔화된 미국 6월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 상승률



자료: Bloomberg, CEIC, iM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2. 7월중 원화 가치가 주요국 통화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



자료: Bloomberg, CEIC, iM증권 리서치본부

Compliance notice

-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-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 -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